



# 다큐 귀국 장면에 감명 영화로 만들고 싶었죠

‘덕혜옹주’ 허진호감독 “픽션 개연성 고민 많았다”

영화 ‘덕혜옹주’는 실존 인물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삶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영화인 이상 허구의 가미는 불가피한 일.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사실(史實) 그대로 재현하려다 보면 영화의 재미가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허구의 이야기를 많이 넣다 보면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덕혜옹주’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은 최근 진행한 인터뷰에서 “픽션의 개연성, 정당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런 딜레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허 감독과 배급사 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덕혜옹주의 일생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 동명의 원작소설을 참고하되 영친왕 망명 시도와 같은 허구의 사건을 추가했다고 밝혀왔다.

그런데도 영화가 개봉한 후 ‘덕혜옹주’가 언제 독립운동을 했느냐’며 덕혜옹주

미화 논란이 일고 있다. 극 중 덕혜옹주가 일제의 폭주카시 노릇을 하라는 친일파 한택수(윤제문)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하고 일본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앞에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거나 덕혜옹주가 조선 황실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불리는 점은 이런 논란에 불씨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허 감독은 이에 대해 “덕혜옹주의 삶을 극화하면서 남겨서는 안 되는 선이 있었다”며 그중 하나로 “덕혜옹주가 독립운동가로 그려지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덕혜옹주가 이방자 여사(영친왕 부인)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을 때는 잠자코 있다가 터덜터덜 한국말로 물어보니 그제야 대답했다는 자료가 있다”며 “당시 아버지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했다는 설이 퍼져 있어 덕혜옹주에게 반일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혔다.

영화 속 영친왕 망명 시도 역시 완전히

허구는 아니다. 영친왕의 형이자 고종의 5남인 의친왕 이강을 중국 상하이로 망명시키려 한 ‘대동강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강은 중국 단둥에서 일본 경찰에 붙잡혀 망명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덕혜옹주’는 허 감독이 8년 전 본 다큐멘터리에서 덕혜옹주의 귀국 장면을 인상 깊게 보고서는 덕혜옹주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37년 만의 귀국이였다. 일본으로 가기 전 총명하고 조선의 보물로 사랑받던 사람이 37년간 정략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딸은 자살하고... 그럼에도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다.”

허 감독은 덕혜옹주가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을 영화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란 앞서 ‘스타킹’, ‘동상이몽-관찰아’ ‘관찰아’, ‘신의목소리’를 폐지한 SBS는 육아



허진호감독

헤옹주의 삶이 비극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해서다.

허 감독은 “개인적으로 500년간 지속한 조선왕조가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느냐 싶었다. 조선왕조를 비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귀국하고 싶어 했던 이들을 못 들어오게 한 것은 잘못 아닌가”라며 영화를 만든 데에는 관객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가질 것을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음을 전했다.

## SBS 예능 대거 재편성 “경쟁력 강화 위해”

‘꽃놀이패’ ‘미운우리새끼’ 정규 편성 ... ‘오 마이 베이비’ 폐지

SBS TV 예능이 썩 바뀐다. SBS는 2016 리우 올림픽이 끝난 이후인 오는 22일부터 평일 밤 11시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대거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개편 이후 월요일 밤 11시에는 누리꾼의

투표 결과에 따라 여행하는 ‘꽃놀이패’가, 화요일 밤 9시에는 블랙박스 영상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보는 ‘맨 인 블랙박스’가 방송된다.

또 금요일 밤 11시에는 싱글족 아들과 엄마의 모습을 담은 예능 ‘다시 쓰는 육아

일기 : 미운 우리 새끼’가 방송된다. 이 방송은 파일럿 프로그램과 같이 한혜진-신동엽 MC에 김건모, 김제동, 허지웅이 출연한다.

현재 금요일에 방송하는 ‘웃음을 찾는 사람들’은 수요일 밤 11시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스타킹’, ‘동상이몽-관찰아’ ‘관찰아’, ‘신의목소리’를 폐지한 SBS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인 ‘오 마이 베이비’도 2년 7개월만에 폐지한다.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던 토요일 오후 4시50분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시간대 방송되는 인기 프로그램을 재방송할 예정이라고 SBS는 설명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대거 폐지하거나 시종 종료한 뒤 파일럿 프로그램을 선보였던 SBS는 “파일럿 프로그램 가운데 참신성과 화제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새로운 정규 편성 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YG 야심작 ‘블랙핑크’

### 싱글음반 ‘스퀘어 원’ 발표

“기다러운 데뷔여서 떨리고 긴장돼요. 앞으로 블랙핑크 만의 색깔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7년 만에 선보이는 걸그룹 블랙핑크가 8일 베일을 벗었다. YG의 색깔대로 힙합을 베이스로 한 음악을 선보이면서도 멤버들의 실력과 외모는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4인조 블랙핑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데뷔 싱글음반 ‘스퀘어 원’(SQUARE ONE)을 발표하는 소감을 밝혔다.

멤버들은 “오랜 연습 기간을 거쳐서 데뷔하게 돼 떨리고 설레이면서도 긴장된다”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과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YG가 ‘야심작’이라고 표현하며 자신감을 나타낸 이 팀은 제니, 지수, 리사, 로제 등 4명으로 구성됐다. 평균연령 만 19세로 길게는 6년, 짧게는 4년간 YG에서 트레이닝 받았다.

지수는 에픽하이, ‘하이 수현’ 뮤직비디오를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뉴질랜드에서 유학한 제니는 지드래곤의 2집 타이틀곡 ‘블랙’에, 후주에서 태어난 로제는 지드래곤의 ‘걸국’에 피쳐링으로 참여한 바 있다. 태국 출신 멤버인 리사는 YG에서 약 5년간 연습생 생활을 했다. 멤버들은 영어는 물론 일본어, 태국어 등 여러 언어를 구사한다.

이날 멤버들은 투애니원과 빅뱅의 히트곡을 만든 테디가 프로듀싱한 음반 수록곡 2곡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뽀빠이’는 폭염을 시원하게 날려줄 강렬한 리듬의 에너지 넘치는 곡이며, ‘휘파람’은 몽환적이면서도 세시한 이미지를 담은 힙합곡으로 서로 다른 매력이 담겼다.

블랙핑크는 정식 데뷔 전부터 대중적인 관심을 모았다. 지난 달 6일 공개한 안무 연습 영상은 한 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 600만 뷰를 돌파했다.



TV 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여기는 리우 (탁구, 체조)	5:00 2016 리우올림픽 (펜싱, 유도, 여자하키)	5:00 리우 2016 (펜싱, 유도)
7	50 여름특선 양코르 인간극장	20 리우올림픽 하이라이트	00 MBC 뉴스투데이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2016 리우올림픽 (수영, 여자배구)	00 리우 2016 모닝와이드 30 KBC 모닝와이드 50 리우 2016 (배구, 탁구, 수영)
8	25 아침마당	10 여기는 리우 (여자배구, 수영)		
9	30 KBS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닥터 365 05 아이엠 몽니 35 위대한 유산
12	00 KBS 뉴스 12	00 함부로 애틋하게 (재)	00 MBC 정오뉴스 20 2016 리우올림픽 하이라이트 (합수 꿈꾸리우)	00 SBS 12뉴스 20 리우 2016 하이라이트
1	00 2016 리우 올림픽 중계식	00 KBS 뉴스타임 10 1대 100 (재)		00 2016 대한민국 프라젠테이션 대회
2		00 자동차부착식 위기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똑? 킷키스쿨 55 아빠 어릴 적엔	00 3시, 뉴스브리핑
3		00 감성애니 하루 (재) 05 올림픽 특선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4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5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올림픽 투데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전문목 남도에 살아리라
6	00 KBS 뉴스7 35 여름특집 KBS 대기화 (다락터스켓)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토크리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7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리우 2016 특집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킹
8	00 KBS 뉴스9	55 여기는 리우 (양궁, 펜싱)	30 리얼스토리 논	
9	00 광복절 특별기획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여기는 리우 (양궁, 펜싱, 유도, 탁구)	00 월화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닥터스)
10	00 KBS 뉴스라인 40 2016 리우 올림픽 (비치발라볼 남녀 예선)		10 2016 리우올림픽 (펜싱, 유도)	10 리우 2016 (양궁, 유도, 탁구, 펜싱, 탁구)

EBS 1	
05:00 EBS 생활영어	10:30 한국기행(재)
05:30 건강현아침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총백세 새우부엌과 깻잎순 나물)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중국 차재기행 쓰촨, 차의탄생)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10 EBS 특별기획 통찰(재)	12:00 EBS 정오 뉴스
06:10 레이디 버그	12:10 시대공감(재)
07:30 로보카 폴리	12:40 지식채널e
07:45 뽀뽀뽀 뽀로로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08:00 땃땃땃 유치원1~3	13:35 뷰티풀 코리아 (경관에 새긴 영문, 해인사 고려대장경)
08:45 코코코 다코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09:00 코코몽3	13:50 원더볼즈
09:30 원더볼즈	14:00 로보카 폴리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학벌 사회는 끝 미래 인재 조건)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50 극한직업 (보양식 만드는 사람들)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류 오늘 (강이치 공작)
15:15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테마기행 (광활한 대지의 유혹, 몽골 - 초원의 축제, 니담)
15:30 피터라비	21:30 한국기행 (전설의 고향 - 나무가 운다 바다가 운다)
15:40 꼬마기사 마이크(재)	21:50 EBS 디큐프라이 (나무가 운다 바다가 운다)
15:50 뽀로로와 노래해요 - 초원의 축제, 니담)	22:45 디큐영화 길 위의 인생
16:00 코코몽3	23:35 시대공간
16:30 코코코 다코(재)	24:05 지식채널e
16:45 땃땃땃 유치원1~3(재)	
17:30 뽀뽀뽀 뽀로로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19:00 레이디 버그(재)	
19:30 EBS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9일(음 7월 7일 癸亥)
<p><b>子</b> 48년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느니라. 60년생 사전에 조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72년생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아진다. 84년생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37, 55</p>	<p><b>午</b> 42년생 자발적인 자세가 상승 효과를 보일 것이다. 54년생 내색 할 단계가 아니다. 66년생 오랫동안 진행될 것이니 장기적으로 대비해야겠다. 78년생 국지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것의 관심이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73, 08</p>
<p><b>丑</b> 49년생 사실부터 파악해 두고 볼 일이다. 61년생 행운으로 연결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73년생 폭염 속에서 폭우가 쏟아짐에 비유할 만하다. 85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틀림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68</p>	<p><b>未</b> 43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며, 갈구해 왔던 바를 이룬다. 55년생 액면 그대로 인식해야만 명정한 관점을 확보한다. 67년생 성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79년생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자. 행운의 숫자 : 63, 42</p>
<p><b>寅</b> 50년생 예상했던 바와 정반대로 될 수도 있다. 62년생 판세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뿐이다. 74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86년생 오늘의 선택을 잘한다면 뒷일이 수월해진다. 행운의 숫자 : 78, 07</p>	<p><b>申</b> 44년생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할 때다. 56년생 막힌 곳은 속명적으로 풀려나갈 것이다. 68년생 진중함 자세를 견지해 나가 는 것이 중요하다. 80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행운의 숫자 : 82, 06</p>
<p><b>卯</b> 51년생 지금 즉시 뜻을 펼쳐보는 것도 기대할 만하다. 63년생 함께 하는 이외의 호흡이 중요한 때이다. 75년생 의욕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겠다. 87년생 상당히 생기겠지만 거의 없어지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3, 56</p>	<p><b>酉</b> 45년생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각적으로 현격히 축소될 수도 있느니라. 57년생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69년생 첫 술에 배부르랴? 81년생 사람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7, 76</p>
<p><b>辰</b> 40년생 행운을 이끄는 길성이 비추고 있다. 52년생 다른 일이 겹쳐 걸리는 형상이다. 64년생 너무 이변이 많아서 중행무진 할 수도 있다. 76년생 평상시에 안전 의식을 잊지 말아야 면액할 것이다. 88년생 뜻 깊은 날이다. 행운의 숫자 : 40, 90</p>	<p><b>戌</b> 46년생 부정적인 요소가 생기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면 그만이다. 58년생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음이 무난하다. 70년생 그나마 더운같이 할 정도는 되겠다. 82년생 분명히 기회는 주어 진다는 사실을 알라. 행운의 숫자 : 45, 03</p>
<p><b>巳</b> 41년생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53년생 훨씬 진전된 하루가 될 것이다. 65년생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77년생 요점을 잘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 89년생 시작이 반이 될 것이니 과감한 실행을 요한다. 행운의 숫자 : 74, 35</p>	<p><b>亥</b> 47년생 파격적인 발전으로 인해 성과가 크겠다. 59년생 전체를 아우르면서 일일이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거의 같다. 71년생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83년생 기본에 좌우된다면 큰일나는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0, 26</p>